

青年局今年活動方針檢討

○ 利도우손 (韓國救世軍司令官)
 一月二十八日 東京發 釜山半任
 ○ 權인主牧師 一月二十七日訪日
 ○ 趙洪善牧師 (總會長) 二月一日
 橫濱教會 獻堂式 成牧師就任式
 에 參席大 東京着
 ○ 朴命奎牧師 (大垣教會) 同上
 ○ 金元治牧師 (大阪西城教會) 同上
 ○ 金德成牧師 (名古屋教會) 同上
 ○ 咸丁萬牧師 就任人事大來社

督者들의美舉

좌측이 있는 국제시장 그날
 그날 별이서 생명을 유지해
 하는 피난민들이 들끓는 국
 세시장이 전부 단 모양이니
 국제전화국과 미국대사관을
 겨우 구했다니 그 종간의
 진들과 그 주위의 진들이 다
 실패했으니 그 가운데 인명

組織五十五週年紀念

이게 웬 일인고 전쟁에
을 잃고 몸을 피하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신세에 생

韓基敎協會에서
中等學校聖經敎本

외국 불교이니 사고 권고 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피난민 신
 세에 이들이 일조에 못살게
 되었으니 이일을 어찌하노
 불의 원인이 무엇인지 날
 은 추워서 화로 불을 해 놓
 고 뭇은 고달프니 잠들어
 실수했는가 자우간 이 추위
 에 혈병고 굶주려 한디에서
 떨면서 울부짖는 어딘것들이
 보는듯 눈에 선하다 어제밤
 꿈에도 라다 남은 자리에서
 울고있는 아이들 부인들의
 눈물겨운 정사를 보았것만
 천히 가면 얼마나 참혹하랴
 동표여 형제여 저들을 누가
 구하랴 피를 노는 우리가 구
 하자 하루바삐 구하자.

人事

○列支辛色（韓國救世軍司令官）
一月二十八日 東京發 釜山昇任
○機田主牧師 一月二十七日訪日
○趙漢濟牧師（總會長）二月一日
橫濱教會 獻堂式 成牧師就任式
○參席次 東京着
○朴命全牧師（大垣教會）同上
○金元治牧師（大阪西成教會）同上
○金德成牧師（名古屋教會）同上
○成丁萬牧師 就任人事大來社

다가 도라온후 나도 모르게
파오를 범하는 어두운 인간이
되되 세상적 허됨을 받고
창조 만지음을 받았도다.
의욕에서 모호히 반전할지
이렇게 가족을 만일가 부유할
기원합니다. 참이면 창립으로
내다 보이는 열정을 뜻조한의
합살하고 교향가족들도 보모일
을 지 보모
유치학교주선으로
하고 수선 부
인 한우일가
그외의 도 불을
산 조물들
저러됩니다. 어공제하인지를
바른 인간으로 겸성하입니다。
참고 이별심대로 남은일을 살
고싶으나 이별심도 적적하여지
면 나를 위로하고 겸심을 감
하게는 못합니다 모쪼록 내게
참 용기를 가르쳐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감하게 하려주십
시오
千堯 박중익

獄中告白

漢文音廢止

師님이 말씀하더군요.....
 李 魏요? 성명 번역文은 가나라
 반중동 일반적이고 가장 표
 주되는 말로 써어지는 것이
 원족이 많임니까 우리말성명
 도 우리말로 바꾸 써워지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가요.....
 田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성
 명에 意味가 같은 글귀라도
 함부로 고치기는 어려운 단
 계에 있지요 이번 한글판성
 명에 대하여서도 한글로 고
 치것이 약간 불평이 있어서
 잘 사지를 읽는다는데 생각

編集者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
 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한
 일, 이, 삼서를 읽는중에서
 오자가 있는것을 보고 빨리
 校正版을 내달라고 성서공
 회에 편지하러합니다.
 오늘은 긴시간 귀한 말씀
 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東京勉靑任員改選
 東京敎會연려靑年會에서는 지
 년十一日(主日)午後一時부터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의 활
 동보고를 받은후 금년도의 신
 개회를 세우고 임원개선을 하
 었는데임원은 다음과같다.

東京勉青任員改選

(連)續 누가
 (講)座

一 本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고 그 진리를 밝히며, 이를 통해 인간의 구원을 얻고자 함에 있다.

二 本誌의 편집은 다음과 같다.

三 本誌의 특색은 이방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세상 만민의 구원의 길이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한 점이 이 책의 특색이다. 그러기 때문에 메시야의 신 예수보다 인간민이 풍부한 예수를 기록하였다. 또 이방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一〇39九52以下, 十七以下) 더욱이 법학자와 외인에 대하여는 깊은 동정적 태도로 그리스도의 한없는 공물을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의 특수한 점이다 (十四13, 十九8, 六20-24十五1-32, 十六14-18) 또 이 책에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기록도 많다 (三21、五

(講) (連)
(座) (續)

求道者

- # 福音
- 求道者
- 16, 六十二、九二、一三三、一三八(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른 두 복음을 읽을 권유한 기사들도 많은데) 우리는 의사와 학문도 있는 사람이었기때문에 문체(文体)도 아름답고 변화가 풍부하다는것도 후세의 하나이다.
- 四本書記年代 기록한 연대
- 五內容區分
- 一 예수와 생전과 前後의 일
 (一章五一—二章)
- 二 예수나 사귀는 법 원리
 (一章五—八)
- 三 예수와 인간과 이월로
 (二章 전체)
- 四 증시시대 (三章一—四章十三)
- 五 세례요한의活動 (三一—四三)
- 六 갈릴리의 예수
 (四章十四—一九五)
- 七 전도와 병치심
 (四章一四—六章一六)
- 八 예수의 설교 (六章一七—四九)
- 九 예수의 메시야모습
 (七章一一—八章三)
- 十 비유로 가르치심
 (八章四—二一)
- 十一 여러가지 의적을 행하심
 (八章二二—五六)
- 十二 전도활동
 (九章一—一七)
- 十三 고난의 예고와 사건들
 (九章一八—五〇)
- 十四 갈릴리에서 에루살렘까지
 (九章五一—十九章二七)
- 十五 예수의 출발
 (九章五一—十章二四)
- 十六 에루살렘 가는 길에 된일을
 (교훈, 비유, 미유, 기적 등)
 (十章二五—十九章二七)
- 十七 고난주간 (苦難週間)
 (十九章二八—二三章)
- 十八 고난전 (苦難前)
 (十九章二八—二二章)
- 十九 예수의 활동, 교훈, 대화
 (十九章二八—二二章四)
- 二十 암시에 대한 예언
 (二二章五—三八)
- 二十一 고난의 시작 (二二章一一—三八)
- 二十二 곤난을 받으심
 (二二章三九—二三章五六)
- 二十三 예수의 부활 (二四章)

說教



서로도아주는生活

(行四章 32 — 37)

名古屋教會牧師

金德成

서로 돕고 서로 붙들어주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거니와 서
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게
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의 산다성이 그 천구와 함께
준행인 하마리아는 온 산력을
넘을 때에 도중에서 얼어 죽어가
는 이를 업고 간 그는 살았고 자기 혼자
만 살겠다고 달아난 천구는 종간
에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 가 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의 추한 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들이 다
함께 모여 한아름과 한듯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
하고 재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주는
생활 즉 유무상주의 생활을
하였다 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현상은 초대교회
에 있어서의 공산주의라고 말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오늘 우
리가 말하는 맑스주의와는 다
른 것이다. 금일에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철학을 기본으로
한 것이요 이 초대교회의 현상은
신앙을 기본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일에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몰류담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되며지는 사실을 팔합이요 이초대교회에 일어난 사실은 자랄적으로 오로지 남에게 주려는 사랑의 정신에서 나타났것이다. 이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서로 도와주는 생활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것이였다. 즉 예수그리스도는 약자 빈자(貧者) 병자들을 살리시다가 최후에는 그 생명을까지 받치시고 모든 인간들의 잘못된 책임을 전부 자기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제물이 되셨다. 자기가 살기위하여 많은 사람을 죽인것이 아니라 만민을 살리기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과 복사와 회생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 었든것이다 그들은「대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서로 말미아마 살게하셨나니라」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대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라하는 신앙에서 그들은

傳道欄

聖經을 어떻게 읽을까
(2)

은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생활이 시작되었이었다. 이와 같은 생활은 주후二、三세기에 도 여전히 계속된것을 볼수있고 마율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중에도 저이가 환난가운데 서라도 시험을 많이 받을때에 기쁜 마음이 더욱 많아 심히 가난하여도 구제하기를 더욱 충성하게 하였다고하였다. 二세 기초의 신학자인 엘루리안¹의 일결주에도 저들은 서로 죽기 도 사랑치않고 모든 물건들 중용하며 도와준다고 하였고 루시안은 기독교를 확고하게 구절을 쓰는중에 기독교인들의 그 여러운중에서라도 서로 도와주는일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없다고 하였다 로마교회는 이시대에 보통 五만명의사와 병든자 가난한자를 구호하며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진실로 금일과같이 그리스도의 순애의 발로인 서로도와주는 정신이 요구되는때가 없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민족은 이 어려운 수난기에 서로 붙들어주고 도

고 하였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몇번씩 거울을 본다 거울 보아서 내 몸의 잘못되었을 고치고 더럽힌 것이 있으면 다시 고리고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의 거울을 보아서 자기마음의 잘못된 것 후 더러운것을 고쳐려하는 자는 심히 적다.

적어도 하루에 한번씩은 성경을 읽어서 우리 마음에 잘을 붙잡고 어떻게 일했다.

x 성경은 우리의 가장 귀한 재산이오 그리고 마음의 양식이다. 아무라함 린런 대웅령이 주는 것이다.

『예루』 어미가 내게 줄것은 이것 밖에없다 그러나 너가 일만평의 땅을 가지는 것보다 이제 한천을가 지고 이것을 잘 읽어 주기를 바란다

열한살된 아들 린컨을 남기고 마지막 길을 가는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읽든 성경은 채울 주변서 어린 아들의 손로 우리에게 없지 못할 것이니 데 특히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육체는 하루 세때 식사를 하여야되고 양식이 필요

學校講座
教師講

鑑賞と論議
— (5) —

魯安理



한 중흥부에서 그 해 연도 말도가까운 몇주일전에 예수 생화에 관한 공부를 필하였다. 그래서 한 의명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배운 예수의 열 두가지 예시스트에 따라서 그림을 사용한 쓰케지틀 만드면 대단히 재미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올 때에 나는 각기 자기가 택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물론 일년 동안 교안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 때에 나는 그 그림을 잘 본들 다 같은 그의 공생에게 관한 것이지 아니한 사건들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였다. 모인 그림

속에는 이주 평정한 장면이 있는가 하면 아주 평정한 것도 있었다 그중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도 들어 있었다 어떤 장면을 뵈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꾸밀것까지 말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우선 다음 같은 결론이나 왔다

1 현대 사람에게 제일 유의한 것일것

2 예수 생할 전부를 잘 보간할수 있는것일것 따라서 같은 시기의것을 너무 많이 추려서는 안되었다.

3 예수의 생활 전체의 의미와 잘 합치하는것일것. 따라서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을 넣지 않기로 되었다.

4 너무 광대하지 않은것일것 무대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원칙으로 다시 일을 진행시켰는데 다음에 또 당하게 된 문제는 그 추려낸 장면이 한가지 복음에만 있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며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것인가 하는것이 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대조표를 찾아 보았다 다른 복음에 있는것은 피차 차이점을 알아내려고 결국 어느 복음서를 토대로 할것인가가 문제되었다. 노는 한 결과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그 복음서의 성구절을 따져서 제목 다음에 적어준다 그 구절의 뜻에 관한 질문이 나면 성서사전을 가져다가 찾아 본다.

戰亂中の祖國文化運動

特히基督教文化運動에 대하여

秋湖

나는 지난 호에 동난이후에 우리 문화운동을 대강 소개하고 다듬어 기독교계의 문화운동에 대하여 간단한 말로 소개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문화운동이요 문화사업이다. 그중에서 기독교의 문화운동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경제해 보지 못한 사람이 알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이에대한 교인과 지도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부족한것이 하나요 그다음에는 여기에 역량있는 인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법위가 국한된것으로 출판물의 소비와 판매에 있어서 법위와 양이적은것도 한 원인이 될것이다.

더구나 사변의 타격을 받은 면서도 몇가지 주간신문과 월간잡지가 나온다는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공백의에는 자금난으로 또 수지가 맞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계속여부가 문제되는 모양이니 매우 걱정이다. 지금까가 계속되는것은 발행하고 편집하는 이들이 사재를 털어내고 벌영전을 하며 밤을 굶어가면서 해가는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를 계속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교인사들은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성의하다. 다행이 「野聲」같은 잡지는 독자가 늘어나서 겨우 유지가 될것이다. 다른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필자가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 신문의 총력을 집중하여 일간신문(日刊新聞)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할것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나쁜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숙제의 하나요 공동안희망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월간 잡지도 한개 대표적이요 종합적인것이 생기기를 바란다. 신문이나 잡지나 다 과학적인이 있고 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고 이것이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에 서적출판 운동으로는 작년에 안용준씨의 노력으로 순교자 송영원목사의 전기소설인 「사람의원자탄」 후편이 나온것이 기독교문화으로 귀한 수확이라고 할수있다. 우리의 역사적인 국난이오 가장 처참한 화를당한 六一九사변이 지난지 만 이년이 남도록 일반문단에 사변을 테마로한 좋은 작품이 못나온것이 유감인데 우리 기독교측으로 이만한 저술이 나온것은 한자랑거리다. 그러나 좀더 법위가 넓고 기독교 동남문학회 아직 안나온 것이 유감이 아닐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그동안 동경에서

韓國婦人의自覺(上)

Y.T.C

『나도 사람이다』

지금온 민주주의 시대라, 모든 사람이 자유를 찾고 평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남의 나라의 압제를 받고 살지는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것은 말할것도 없고 오랫동안 남자에게 눌리워 지내온 자유를 받고 평등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양 여자들은 벌써 오래 전에 이 해방

을 받아서 남자와같은 자유와 해복을 누리고 있으나 동양의 부인들은 요새야 사람의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이다. 남자와 여자나 다 같은 사람이다. 하는 「민주주의」사상은 어디서 온것일까 그것은 사람은 다 같은 하나니의 자녀라는 성령의 교훈에서 나온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한국교회사를 연구 저술하고 있다. 신병으로 귀국한 김로 박사에게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는 교계의 출판사업의 중 심은 아무리하여도 「기독교서회」에 돌을바라고 있었으나 사변이후에 가장 힘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천송이와 주일공과회의 최석주목사의 「폐허의기원」과 필자의 전도 박형용목사의 주간으로 「신학정 책자」로 「신앙의 원고」(信仰의 원) 등 여러 지간지에 들어있는 「金正宗牧師의 「예수전」 등으로 「기독교문화」란을 내서 많은 환영을 받고 그밖에 출판되었 「문화정회」가 발족되었다는것은 든 어느때의 신학잡지를 다시 새해의 기쁜소식이다. 앞으로 출판하고 싶은목사의 神學史를 출판한 발전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음악과 극방면에 대하여는 전에 종교극 운동을 열심히하던 조로라씨는 지난 연말에 「선관극단」을 내놓고

詩

더높이

제일 멀리까지 간이가 누구나
나 웨 그러냐하면 나는 더
멀리가고 싶으나란.

그리고 누가 바르냐 웨
러는고하면 나는 땅위에서 제
일 바른 사람이 되고픈 까닭
에.

또 누가 제일 신중했는가
웨 그러냐하면 나는 더 신중
하고 싶은 까닭에.

또 누가 제일 행복스러웠는가
오오! 그것은 나라고 생각하노
라! 일찍이 나보다 더 행복
스러운 자는 없다고 나는 생

각하노라
모든것을
누구나 웨나
가장 좋은것
주요 있기에
제일 자존
누구나 웨나
는 자로 제
있다고 생각
는 기운차고
그리고 누
하였는가 웨
제일 용감하

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갈라디아서 3:28) 한 말씀은 성령의 평등사상입니다. 오늘 세계는 이 귀한 사상의 빛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찾게되고 여자들도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된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의 관념, 다 같은 사람이라고하는것은 그 사람이 사람의 자각을 가지고 사람의 책임을 다하는 조건에서 성립되는것이다. 자기해독이나 자기말에 대해서 어느까지나 책임을 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이냐 정진병자는 특별히 사람으로 대접해줄수는 아니나 사람의 권리를 찾을

자적은 얻은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 부인들은 첫째 인격적으로 작을 가져야 되겠다.

남녀평등이라든지 나도 사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더구나 말만 한다고 평등이 되거나 사람도 못을 하는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부인들은 인격적인 자각이 없는 점에서 세가지로 몰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전히 과거의 여성으로 무조건으로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노예로서 만족하면서 노예라는 생각조차 없는이들이요 또 하나는 남자의 사단을 받고 남자를 즐겁게하여 남자의 노리

실업에는 발원이 없고 교회에 갓 들어온 어린 수목사를 이사 앞으로는 장수성 박재훈 양씨 장으로 취재하였다.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그물과 전제적이며 신앙적인 자질을 발표하는 찬미에 좋은 성취가 있기를 바란다.

본업에 배가 두번이나 있었고 자과집도 출판되었다. 앞으로 두사람의 많은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믿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방면에 뜻이 있는 이들이 작년十二月 초순에 『교회음악협회』를 조직하고 미국에서 하기를 재촉하고 뜻을 품는다.

海軍將兵二十一名受洗

傳道半年에七十名入信

한국 해군 제六十三함정에서 의 장병이 세례를 받았다. 이는 지난一月十一日에 二十一名로서 六十三함정(戰艦)에는

알드·취트만 작

Y · T · C 譯

아름없이 준 자가 하면 자기가 가진 물 나 는 연애나 문이다.

(自序) 한 자는 하면 나는 살아있을 자존할 이유가 하는 까닭에 나 는고 뛰어나는 인 까닭에.

가 용감하고 성실 나하면 우주에서 고 성실한 존재가

개가 되고 후 노는 통루는 될지언정 함께 독립한 대동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 하고 서로 존경하는 친구는 못되는 이을입니다. 이 두가지 종류의 삶을것입니다. 이런이들이 아모 에(세대로) 아모 인격적인 자 불평히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 각이 없고 한 사람으로서 또 은 가끔 남자의 모욕을 당하 여 자로서의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일로로 생각으로만 한 못하고 일로로 생각으로만 한 것시대의 유대인들의 남녀동등 을 찾아서 가끔 남자와 부질 없는 충절을 하고있는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의 용서다 아무 생각이 없이 남자의 노 에선물로 볼 자녀를 생산하고 기르는 충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말할것없고 그다음에 남

세례교인이 二十七名에 달하였 다. 그외에 학습교인 十二명과 결집자 三十一名이 있다.

그러나 이 함정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신자가 많이 있었었던것 은 아니다. 一九五二年六月에 종군목사제도가 실시되여 이六十三함정에 申國國牧師께서 전역되여 후 六個月間에 이루어진 설교라한다.

申國國牧師는 소함정 장병을 그리스도교 인도하기 위하여 전 함대(全艦隊)의 장병의 종교적 관심을 조사한바 그리스도교인 은 三十四名이 되었는데 그중 목회직인자 三名과 1名으로 총 3九名이 되고 불교 1名과 1名으로 그리스도교인이 卅二名이나 무관심자가 半數이상이라는것은注目할일인데 이에대하여 申國國牧師는 전후적 모형의 신앙으로 『다른 종교에 신앙가진사 람들도 있으나 믿지 아니한 장 내에 이六十三함정은 옛날 노 역의 방주같이 될것을 확신합니 다』고 말씀하시고 이 함정은 국련(國連)해군 함정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점에서 자량이 되고있는데 이같이 되 기까지는 함장(艦長) 부장(副長)이 복음전도에 적극적인으로協力원조함이 적지 아니하였다 한다.

一月十一日에 세례받은 장병 의 氏名은 다음과 같다.

金宗烈大尉 鄭建民小尉 李한 朴小尉 李준택 安리화 徐용득 李명옥 金상규 李기식 金의수 姜용술 金인복 李덕근 李상문 曹성대 金성기 文상현 鄭國노 趙正희 金덕규 朴복동氏等 二十一名이다.



(洗禮받는 海軍將兵들)

大榮ゴム商會
履物卸商

金光洙

名古屋市 中村區 椿町 15

(營業品目)

電氣毛布 醫療電氣機器
電氣座布團 製作設計修理
高級ラヂオ

電氣毛布製作所

金山龍源

金龍源

製造元 東京都江東區深川白河町 2丁目 6
發賣元 東京都文京區本郷 2丁目 1番地
電話 小石川 (85) 5038番
合資會社 河合東三堂

(設計施工)

裝置設備所事種張賣事
化設便工各ル販工
水ラ式アブル具氣
汚イ洗インイ具氣
水ボ水バボタ器電

生房道込動及器築
衛暖水打手呂陶建
道湯水打手呂陶建
水給下掘動風衛生土

(營業課目)

有田管工業株式會社

京都市右京區西院西大路通松原東北角
電話 壬生 (84) 0186番
取締役社長 倉凡清
本籍 慶南南海郡南海面北邊洞